

회고록

대한화학회가 생긴 것은 1946년이고 모든 화학 관련 분야가 여기에 속해서 학회 활동을 하였다. 한국화학공학회도 1962년 창립되었으며 고분자를 전공한 학자들은 이 양 학회에서 학회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한국고분자학회가 1976년 탄생되었다. 그리고 고분자 학문은 상공부 산하 중앙공업연구소에서 성좌경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한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에서 2대 회장 김정섭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양대 축이 한국 고분자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학회가 열리면 이 두 그룹이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김은영
제10대 회장(1993년)

고분자학회가 생기고 노익삼 박사가 전무이사가 되어 학회를 운영하였다. 당시는 학회의 살림이 1년에 2백만원 정도, 그래도 재정이 제일 문제였다. 십만 원, 이십만 원 찬조금을 받아서는 도저히 학회를 운영할 수 없었다. 내가 전무이사를 맡고서 한 것이 기업체로부터 찬조금을 거두는 것이다. 먼저 학회를 사단 법인화하여 찬조금을 받으면 곧 정식 영수증을 떼어주게 하였다. 그리고 코오롱을 위시하여 5개 섬유업체에서 2백만 원씩 받고 기타 석유화학 업체에서 찬조금을 받았다. 일본 실리콘 회사에서 3백만 원을 받아 학회 재정이 안정화되었다. 다음 학회 운영으로 봄 가을 총회는 물론 플라스틱을 위시하여 고분자의 분석법, 고분자 하계대학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기업체 기술자들을 교육시켰으며 이것도 한편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3년째인 1979년에는 일본 고분자학회 회장단을 초청하여 회의를 하고 한일 공동심포지엄을 열기로 하였다. 당시 일본 회장단을 대한유화에서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1회 심포지엄은 그해 가을에 KIST에서 열렸고 다음해는 교토대학에서 각각 10명씩 스피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일본의 학회 회원은 10,000명 정도이고 한국은 2~3백명 정도였다. 1회 심포지엄을 하는 동안 나카지마 일본 회장은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로도 한일간 고분자 분야 교류는 매우 많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 고분자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KIST 원장으로 있을 때 고분자 학위를 가진 연구원의 수가 KIST내에 56명이나 되었다. 반면 당시 고분자 학과가 있던 대학에는 5명 이내 나머지 대학은 1~2명이었다.

다음 내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88년도 IUPAC Mini Symposium과 96년도 IUPAC Symposium 이다. 특히 96년도 심포지엄에서 조직위원장으로서 먼저 모금을 했다. 석유화학협회 총회에서 심포지엄의 내용을 발표 하고 모금을 요청했다. LG화학, 한양화학, 한화에서 5,000만원씩, 중견그룹 회사에서 3,000만원씩 무려 4~5억원을 모금하여 심포지엄을 잘 치를 수 있었다. 이때 LG화학의 고(故) 성재갑 부회장이 석유화학 협회 회장을 겸임하면서 모금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국고분자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후배들이 잘 이끌어 주기 바라며 회고록을 끝낸다.